

우리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박 기 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당자체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였습
니다.》(《김일성전집》 제83권 48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우리 당창립대회에서 대중적당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공산당자체를 무산계급의 튼튼한 토대위에 선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시였으며 그 성과에 기초하여 공산당을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산당을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신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우리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공산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신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생소하고 어려운 과업이였다.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대중적당건설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려면 우선 공산당 자체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시고 당안에 강한 조직규률을 확립하며 당중앙의 유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의 구성성분을 개선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여 로동계급의 전위투사들만이 아니라 농민과 지식인의 선진분자들도 많이 들어올수 있게 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혁명대오를 튼튼히 결속하시였다. 이와 함께 공산당이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적인 실천투쟁을 통하여 인민대중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있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공산당은 창건된지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자기 대오에 수십만명의 당원을 가진 강력한 혁명적당으로 발전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확신성있게 령도해나가는 권위있는 당으로 대중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는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기초로 되였다.

우리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신것이다.

이 시기에 공산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절감

하고있었지만 그것을 어떤 원칙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옳바른 해답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실천적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대중적당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인 동시에 로동계급의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초미의 문제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소자산계급의 정당이 합당한 때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으며 그것은 사실상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로 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성관례에는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는 소자산계급의 정당인 신민당을 그대로 두고 농민과 지식인들속에서 공산당의 력량을 확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는 방법으로 우리 당을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주체35(1946)년 2월 평양에서 조선신민당이 조직되게 되었는데 신민당은 조직된 후 소자산계급은 물론 노동자, 빈농민들속에까지 세력을 넓혀나갔다. 이것은 근로대중을 분열시킬수 있는 조건으로 되였다. 근로대중의 분열을 막고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내오는것이 필요하였다.

한편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민주개혁이 실시되는 과정에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가 일층 확고해지고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지식인들의 동맹이 강화되었으며 그들이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데서 리해관계를 같이하게 되였다. 그리고 공산당의 당면투쟁강령과 신민당의 강령이 대체로 일치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창립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한다고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포기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튼튼히 견지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당의 력사적사명을 변화시키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고수하고 관철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하시였다. 그리고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한다고 하여 당에 아무 사람이나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당은 로동계급의 전위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과 지식인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자기 대오에 받아들이는 조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당대렬의 순결성을 고수하는것과 함께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당대렬이 량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핵심을 많이 육성하고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대렬의 질적 공고화를 빨리 따라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당이 로동계급적, 혁명적성격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근로인민의 대중적당건설을 실현할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합당사업이 두 당의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신것이다.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두 당의 당원들이 합당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것은

합당사업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중요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신데 기초하여 두 당의 당원들속에서 합당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산당의 각급 당조직들로 하여금 당원들속에 합당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옳게 인식시켜 당원들이 합당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시였으며 신민당지도 일군들을 만나 그들이 신민당당원들을 합당사업에 옳바로 조직동원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두 당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노동자, 농민, 근로지식인들이 다같이 근로하는 계급계층이며 우리 당이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당이라는 의미에서 당의 명칭을 노동당이라고 달게 하시였다. 그리고 당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당의 당면목적만 규정하도록 하시였으며 당의 명칭과 강령도 두 당의 당원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정확히 규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두 당의 합당사업이 철저히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두 당중앙위원회에서 먼저 합당문제를 토의한 다음 두 당의 세 포조직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두 당의 련석회의를 열고 노동당의 각급 당조직을 내오는 방향에서 두 당의 합당사업을 진행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35(1946)년 7월 27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제8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합당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창립될 대중적당의 명칭과 강령, 규약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7월 29일에 진행된 북조선공산당 및 조선신민당 중앙위원회 확대련석회의에서는 두당을 합당하여 노동당을 창립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고 합당에 대한 선언서가 발표되였다.

두 당 중앙위원회 련석회의 결정에 따라 각 도당확대집행위원회들과 시, 군, 면당확대집행위원회들에서도 합당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그에 기초하여 합당을 결정하는 세 포총회들이 진행되고 면과 군, 시, 도당위원회들에서 합당회의들이 순차적으로 올리 진행되여 창립될 노동당의 각급 조직들을 구성하였으며 각 도당대표회들에서는 창립대회에 참가할 대표들을 선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8월 29일 북조선노동당창립대회를 소집하시였다. 대회에는 공산당원 27만 6 000여명과 신민당원 9만여명을 대표하여 801명의 대표들과 100여명의 방청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회에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고에서 노동당창립의 력사적필연성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당의 성격과 임무를 명시하시면서 노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조선근로대중의 선봉대이며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이라는것을 천명하시고 우리 당의 기본임무를 밝히시였다. 이와 함께 당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과업을 제시하시고 당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으며 노동당의 창립을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사업이 두 당의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근로인민의 대중적당건설위업이 우리 식으로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우리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로동계급의 전위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농민과 지식인들을 당의 구성성분으로 하여 두 당의 합당을 실현하심으로써 로동당이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되게 하신것이다.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된 첨예한 문제의 하나는 당의 구성성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특히 지식인을 당의 구성성분으로 포함시키는가 아니면 배제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당건설경험에는 당을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계급적정치조직으로, 계급투쟁의 무기로만 보았으며 지식인을 당의 구성성분으로 제기조차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지식인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식민지 지식인들이 가지게 되는 반제혁명정신과 애국애족의 사상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지식인을 우리 당의 구성성분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로동당을 창립하시면서 당마크를 제정할것을 발기하시고 일군들에게 그 도안을 작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마크에는 반드시 로동계급과 농민과 근로지식인이 함께 형상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지식인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한 우리 나라 근로인민대중의 통일적당이라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수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당마크에 형상할 로동계급은 마치로 표시하고 농민은 낫으로 표시하며 근로지식인은 펜으로 표시할수 있겠으나 우리 식으로 붓을 그리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여러차례 도안을 보여주시며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상하도록 지도를 주시여 우리 당의 구성성분과 성격을 상징하는 세상에 없는 우리 식의 당마크가 완성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것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지식인들을 우리 당에서 떼내려는 종파분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그들을 우리 당의 편에 확고히 쟁취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대중적당인 로동당을 창립하는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수행되게 되었으며 우리 당은 명실공히 로동계급의 전위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농민과 지식인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새형의 당,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우리 당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자기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우리 당을 명실공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